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재난보도 개선방안 담은 연구결과 발표

-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재난보도 1,000여 건 분석해 현황
및 문제점 짚고 현장 기자와 언론학자의 개선방안 제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27일(목)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는 2022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정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연구는 ▲재난보도 분석틀 개발 ▲개발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분석 ▲현장기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언론학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를 기반으로 개발한 분석틀은 ‘트라우마 관점에서의 긍정·문제 보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해 3개 재난*의 발생 직후부터 2주간의 신문·방송 뉴스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흐림 처리(blur)하거나 정지(still)화면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거나 여전히 재난 당사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전시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원 사고(2022년), 오송 지하철도 침수 사고(2023년), 화성 공장화재 사고(2024년)

또한 재난을 보도하는 현장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담았다. 대다수의 기자들은 재난보도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재난의 참혹한 현장이나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보도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언론사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부의 저연차 기자들이 재난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취재 경쟁의 압박감과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학자들은 현장 기자들과 함께 재난보도의 개선방안을 ▲재난 당사자의 보호와 윤리적 보도 강화 ▲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심층보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보도 ▲취재 윤리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강화 ▲언론인의 트라우마 관리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홍보와 교육 강화를 꼽았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재난 당사자 중심, 구조적 원인 분석, 지속적인 관심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재난보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며, “불확실성으로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뉴스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 해가 되지 않는(No Harm) 재난보도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주요 결과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책임자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심민영 (02-2204-0115)
		담당자	연구원	최은비 (02-2204-021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내용분석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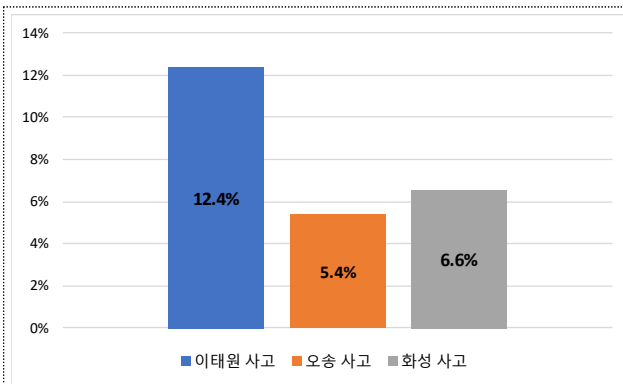
○ **내용분석 범위(총 1,087건)**

- 이태원 사고('22.10.30.~'22.11.14.) : 647건 (신문 287건, 방송 360건)
- 오송 사고('23.7.16.~'23.7.31.) : 242건 (신문 111건, 방송 131건)
- 화성 사고('24.6.25.~'24.7.10.) : 198건 (신문 104건, 방송 9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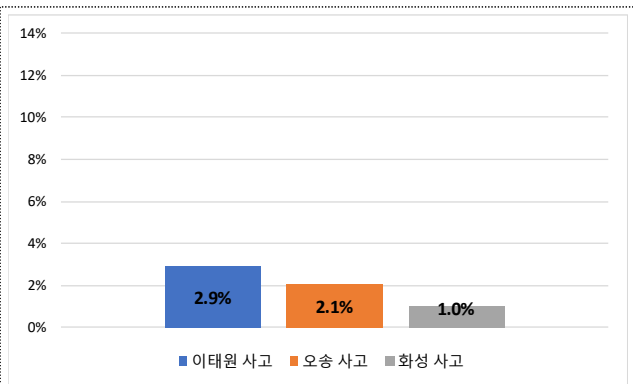
*신문(5개사)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방송(3개사) : KBS, MBC, SBS

○ **트라우마 관점에서의 문제보도* 및 긍정보도* 현황**



▲ 「재난 희생, 죄책감 등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뷰」 (문제보도)



▲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복구, 어려움 극복 보도」 (긍정보도)

*문제보도 : 재난 당사자나 뉴스 이용자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

*긍정보도 : 재난을 겪는 공동체의 트라우마 극복과 회복을 위한 보도

□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 유족 인터뷰로 인한 윤리적, 심리적 갈등
-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경험
- 피해자에 대한 동정에 머무르는 관행적 보도

“데스크들은 무조건 장례식장에서 유족 인터뷰를 따오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때 유족에게 느꼈던 미안함과 죄책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서 ‘제발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말라’는 생각이 맴돌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 방송용으로 편집하기 위해 계속 돌려봤을 때는 불면증과 두통, 구토 증상을 겪었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참담함을 전시키는 식의 보도는 많이 하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 편입니다. ... 언론의 관심이 적어진 뒤에는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될 뿐입니다. ... 피해자는 항상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틀이 아니고서는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관행적인 기사 가치 판단 때문에 복구 또는 회복을 위한 보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